

부단히 개선하는 겸손으로 '최우수' 향한다

- 마전목장(2008 장려상 수상), 대대손손 부끄럽지 않은 목장으로

취재 및 정리: 안 희 경 (농수축산신문 기자)



마전목장 김완균 대표

무엇을 장려할 목적으로 주는, 본상에는 들지 않지만 참가자들 가운데 가능성이 엿보이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뜻에서 주는 상.

장려상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하다.

2009년 장려상을 수상한 충남 논산의 마전목장은 그런 의미에서 상의 의미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목장이다.

가능성이 엿보여 수상한 목장답게 가능성을 현실로 실현하고 있는 것.

처음 마전목장에 들어서면서 '왜 장려상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목장 초입은 동요에 나오는 오솔길처럼 자갈이 깔려있다. 목장 앞에는 마전목장이 새겨진 입간판부터 '잘 나가는 목장'의 위용을 과시한다. 평

지보다 약간 위쪽에 자리한 나지막한 언덕위의 목장은 탁 트인 전경을 제공한다. 목장진입로에 조성된 키 낮은 관목들하며 빼곡이 들어찬 색색의 가을 꽃이 아름답다.

동네 어귀에서나 볼 법한 잘 지어진 정자가 목장 진입로에 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별미라도 나누기 위해 일부러 만들었다고 김완균 대표가 귀뜸한다.

잔디와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있는 작은 정원에는 큰 돌로 된 의자가 놓여져 있다. 둘러앉아 도란도란 사는 얘기를 나누기에 딱이다.

목장 내부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

잘 정리된 농기계와 퇴비사, 착유우들이 들어서 있는 우사는 잘말려진 벼짚이 보송보송 깔려있다. 착유실을 둘러보니 바닥은 깨끗하게 수세됐고 착유기도 깨끗하다.

김완균 마전목장 대표는 '장려상을 받고 많은 것이 달라졌다' 고 말한다. 조경은 물론 목장 환경까지 시상 이후 많은 부분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 가장 큰 변화는 착유시설. 심사당시 선정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착유시설을 선정 후에 최신시설로 교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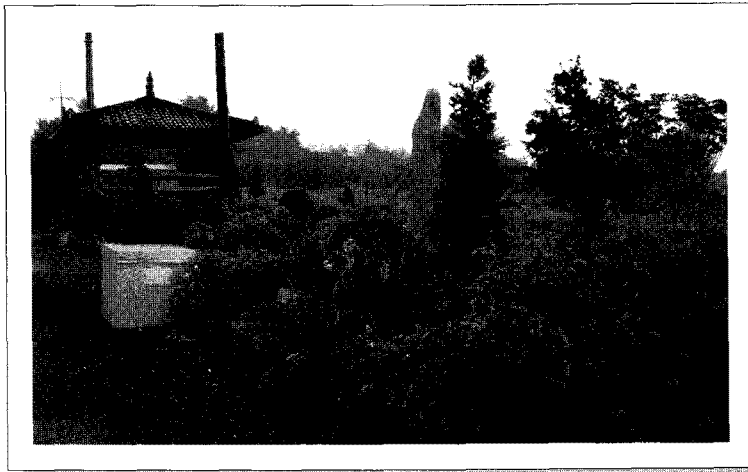
"젖을 짜는 착유시설이 경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사도 깨끗했고 전체적인 환경도 좋았지만 착유시설에 대한 지적



08년도 봄 마전목장. 정자를 짓기 전의 모습



최근 새롭게 단장한 쉼터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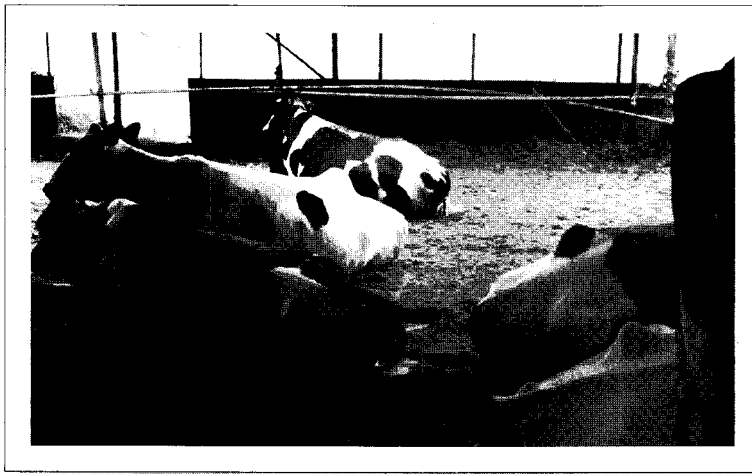
이 많았죠. 선정 후 깨끗한 우유, 깨끗한 목장을 위해서는 착유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설을 전면 보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설자동화를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선정 사업에나 보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선정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꼈고 선진 낙농으로의 의지가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다. 이왕 하는 낙농업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인 것이다.

식재나 조경, 정자와 정원공사도 수상 후 완성했다. 장려상으로 선정된 후 마전목장의 이모저모가 달라지고 있다. 유질저하의 원인으로 추정된 노후 착유기를 교체하면서 체세포나 세균수도 더욱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상을 받았다고 달라졌다고 보다는 심사에서 목장의 단점들을 지적받으면서 30년 이상 꾸려왔던 목장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보완하고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들이 후계로 목장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엔 더욱 발전하는 목장이 되려고 합니다.”

김완균 대표의 마전목장은 후계농을 가지고 있는 목장이다. 김 대표의 외아들이 목장을 이어받기 위해 농고와 농대를 진학, 전문 낙농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그는 마전목장이 자기 대에서 끊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신경쓴다고 말한다. 어디에 내 봐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에게 물려줘도 자신있는 목장을 만들기 위해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목장 곳곳을 신경쓰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목장이 변모되고 있는 데는 아들의 몫이 크다. 젊은 감각과 전문 낙농지식이 결합하면서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전목장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변화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착유우 50마리를 포함해 육성우와 비육우 150마리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마전목장. 마전목장의 미래가 기대된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진짜 목적을 향해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이 시작된 지 이제 4년이 지났다. 올해도 분명 우수목장으로 선정되는 새로운 목장들이 탄생할 것이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우수한 목장을 선정하고 수상하는 것이 아니다. ‘대회’가 아닌 ‘운동’이기 때문이다.

친환경 낙농시스템 구현은 물론 선진 목장으로 지역사회의 리더를 담당하면서 낙농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후계자 고취에도 힘을 얻기 위해 시작된 이 운동은 이제 낙농의 가능성과 선진 낙농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보여주기 식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운동의 진짜 목적을 알고 그야말로 목장이 깨끗해지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치고 있는 것.

선정된 목장들은 모두 제각각의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우수목장은 ‘최우수스러움’을 유지하고 있었고 ‘장려’는 그들의 독려를 받으며 ‘최우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이 운동이 보여주는 진짜 목적이다. ☺